

의정갈등 중재 나선 여당, '민생' 기치로 침체 돌파구 모색

한동훈 "이제 대화 물꼬 트어" 대화 꼬이면 '역효과' 우려도 일각서 "안철수·인요한 활용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醫政) 갈등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주 초 예정된 전공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유연하게 이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대화'에 나서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소개하면서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추진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대강' 대결로만 치닫던 의정 갈등이 당의 개입과 중재로 일단 대화의 실마리를 찾았음을 강조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시작을 하루 앞둔 전날 전국대의교수협의회(전대의교협) 회장단과 회동한 뒤 대통령실에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즉각 수용했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이었던 전공의 면허정지 징계는 잠정 보류됐다. 이 같은 장면은 총선 리스크였던 당정 간 불화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의정 갈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촉발한 당정 간 대립 국면을 봉합한 것을 넘어 최소한 선거 국면에서만큼은 여당이 주도하는 듯한 당정 관계를 유권자들 앞에 보여주는 모양새도 갖춘 셈이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당 대표'가 민생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사직서 제출을 재고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얻었다. 한 위원장은 이처럼 민생 이슈에서 당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초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필요한 중재와 대화의 분위기와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주도로 의정 간 대화 테이블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도출한 해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등 여권 내 의사 출신 인사들이 의정 갈등 중재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중재가 공명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각 측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안 선대위원장, 의과대학 교수인 선대위원장이 적임자"라고 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 타운을 찾아 중구성동구를 이해호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당지지율 국힘 37.1%·민주 42.8%

비례, 국민의미래 29.8%·조국혁신당 27.7%·민주연합 20.1%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1%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1.7%p 오른 60.1%로, '잘 모름'은 0.4%p 오른 3.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4주 41.9%를 기록한 뒤 최근 4주 연속 하락세(41.9%→41.1%→40.2%→38.6%→36.5%)를 보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앞선 결과가 나왔다.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2.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8%p 내리고, 민주당은 2.0%p 올랐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이다. 이와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 3.8%(0.4%p ↓), 새로운미래 3.1%(0.5%p ↑), 녹색정의당 1.8%(0.3%p ↑), 자유통합당 1.7%(0.9%p ↓), 진보당 1.6%(0.3%p ↑)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p 줄어든 5.0%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9.8%(1.3%p ↓), 조국혁신당 27.7%(0.9%p ↑),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 20.1%(2.1%p ↑)로 집계됐다. 이어 새로운미래 4.6%(0.6%p ↑), 개혁신당 4.1%(0.8%p ↓), 녹색정의당 3.1%(0.4%p ↑), 자유통합당 2.8%(1.4%p ↓), 기타 정당 1.9%(0.2%p ↓) 등이었다. 무당층은 0.3%p 줄어든 5.9%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양당 비례 위성정당에 선거보조금 각 28억원 지급

선관위, 총선 보조금 배분 11개 정당에 총 508억원 민주 189억원·국힘 177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이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의석수가 142석으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총액의 37.61%인 189억8100만원을 받았다. 의석수가 101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에는 총액의 35.31%인 177억2400만원이 지급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의원 꺾주

기'를 해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 원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7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0만원을 받았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800만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300만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억6000만원(0.18%)을 각각 수령했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에는 진보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 보조금은 총액의 2.16%인 10억8300만원이다. 이어 자유통합당이 8억8800만원(0.18%), 조

국혁신당이 2억2700만원(0.05%)을 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총액의 2.00%인 10억4000만원을 받았다. 선거 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계산단가인 1141원을 곱한 액수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 /연합뉴스

국힘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땀 대부계약 원천 무효" 공약

국민의힘은 25일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석준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악질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을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재형저축 제도 도입 ▲대환대출시스템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